

2016년 도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6년 12월 21일(수)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사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장 민 조사국장	신 호 순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서 봉 국 국제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승 헌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의안 제45호 -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12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및 보완·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금번 금융안정보고서는 지난 9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보고서 체계를 준용하여 금융시스템(system)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 외환부문 등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음.

부문별로 보면 금융안정 상황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자본유출입 등의 측면에서 부문별 취약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점검하였음. 특히 가계부문의 경우 신용증가세 확대로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의 시장금리 급등과 함께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고,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업부문의 재무건전성 관련 리스크도 점검하였음. 한편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경영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었지만 비은행금융기관 일부 업권의 경우 수익률 추구 현상이 강화되면서 관련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복원력에서는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개선되었다는 점을 기술하였고,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순대외채권, 외환보유액 규모, 단기외채 비율 등 대외지급능력도 양호한 상태라는 점을 서술하였음.

금융안정 현안 분석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경기순응성 약화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은행의 상호거래 연계 구조를 바탕으로 횡단면 측면의 부실 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를 측정하는 한편, 최근 수년간 업황부진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기업신용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도 살펴보았음.

그 다음으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들은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체계가 금융시스템 취약성과 복원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고 평가하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관련 리스크 요인을 보다 명확히 서술하여 금융안정보고서의 조기경보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일부 위원은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의 갭을 이용한 레버리지(leverage) 수준에 대한 평가가 추정방식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각주에 기술(記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시 개별 가계단위의 금융자산부채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는 계층은 저소득 취약계층 뿐 아니라 고소득, 과다부채 보유 가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분양시장의 일부 과열조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대체로 안정을 유지했다고 평가한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일부 위원은 복원력 부문과 관련하여 대내외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은행 이외에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참고 박스(box)와 관련하여 특수은행의 경영건전성과 복원력으로 구분된 박스 내용을 통합하여 기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금융 및 실물사이클 간의 동조관계 약화 현상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갖는 시사점 이외에 향후 양 사이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신용규모 등 양적지표 외에 신용스프레드(spread) 등 가격지표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업황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이 견조하게 늘어난 현상이 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집필시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이번 금융안정보고서는 체계 개편과 이슈 선정이 적절했다고 언급하고 분석방법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내년부터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연간 4차례 개최하므로 금융안정보고서와 동 회의 간의 연계성이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회의주기와 보고서 발간시기 등을 포함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와 금융안정보고서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동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데이터의 샘플을 확대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등과 연계하여 가계부채 분석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이번 연령대별 가계부채 분석은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활용한 것이며 추가로 더 좋은 데이터 셋(data set)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12월)(안)(생략)